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05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8월 30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내 주의 나라와 / 찬송가 208(신) 246(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68번(이사야 40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예수가 함께 계시니 / 찬송가 325(신) 359(구)

기도 / 한정임 권사

성경 봉독 / 시편 119편 10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 박화신 목사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 찬송가 543(신) 34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4절 / 찬송가 588(신) 30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기뻐하였고,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며 갈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없을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자 빛(105절)이 됩니다.
2.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말씀을 찬양하고 담대히 선포하였으며,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여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11절). 나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하소서"(18절)라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 성경을 대하는 실천들은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보물로 삼아 찬양과 묵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내게로  
돌아오라 3

요엘 2장 12-14절

1.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습니다.

2.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겉으로 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는 일이 아닙니다.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얼마나 후회했는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3. 더 놀라운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그분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 지난 두 달 동안 '말씀, 기도가 되다'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시며 기도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4. 다음 주, 9월 6일 주일 EM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5. 9월 27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모임 있습니다.
6. 아드님 방문 중이신 윤진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7. 최상천(명희) 장로님, 박래석(송화) 집사님 가정 다음 주 여행 다녀오십니다. 주님의 평안 아래 기쁜 여행 되시길 기도합니다.

### 9월 예배 위원

| 안 내 | 조 창    |         | 박송화     |        |
|-----|--------|---------|---------|--------|
| 기 도 | 한규철(6) | 김정신(13) | 한미숙(20) | 조창(27) |

### 교 회 모 임 안 내

| 주일 예배    | EM 예배    | 교회 학교    | EM 성경공부  | 제직 성경 읽기      | 금요 성경 공부  | 목장 모임      |
|----------|----------|----------|----------|---------------|-----------|------------|
| 주일 오후 1시 | 주일 오후 1시 | 주일 오후 1시 | 주일 오후 3시 |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금요일 저녁 8시 | 매달 네번째 토요일 |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시편 119:105, 129-130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v.105)  
"주의 증거들이 놀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v.129)

## 말씀을 향한 시인의 3가지 마음

1. 말씀을 기뻐함 (Delight)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했습니다. (시 119:24, 47)
2. 말씀을 갈망함 (Long for)  
하나님의 말씀을 숨 쉬듯 갈망하며 사모했습니다. (시 119:131, 123)
3. 말씀을 의지함 (Rely on)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길을 맡겼습니다. (시 119:105, 133)

##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 시인이 실천한 3가지

1. 말씀을 자기 안에 깊이 들여놓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시 119:97, 148)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시 119:11, 93)  
하나님을 더 알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2.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했습니다. (시 119:164, 172, 13, 46)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순종했습니다. (시 119:129, 168)  
말씀은 생각과 선택을 바꾸며,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 119:18, 147)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깊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 고난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시 119:95, 161)  
말씀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 오늘 우리에게

- 말씀을 기뻐하고 갈망하라  
말씀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길을 비추십니다. ♥